

우리-민주, 통합 협상 냉기류

‘특정세력 배제’ 놓고 대치 전선 민주 “내달 중도개혁신당 창당”

범여권 통합의 방식과 경로 등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냉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지난 11일 첫 회동을 갖고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만 박 대표가 참여정부 실과 책임자 등 특정세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양측간에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당은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민주당 박 대표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특정 세력의 배제’를 제시한 것을 놓고 파상적인 비판공세를 펼쳤다.

정 의장은 회의에서 “신당은 개방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합의 목적인 대선 승리를 향해 여러 세력이 합의해 배를 띄운다면 배에 탈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의지 문제이며 배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타도록 설계하고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동영, 김근태, 이해찬, 한명숙은 안 되고 이인제 의원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고무줄 잣대”라며 “박 대표의 구태정치와 지분정치, 고집정치, 한풀이 정치, 나홀로 정치만 없으면 통합은 ‘식은 죽 먹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표가 배제 대상으로 지목한 당사자들도 “여권후보 죽이기의 또 다른 버전이다”(김근태), “노선이나 성향의 차이를 들어 편가르고 배제하는 정

치는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정동영)”, “빨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한명숙)”며 일제히 반발했다.

통합협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우리당과의 당 대 당 협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당은 당 차원의 대표를 중추협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

서고 있다.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중도통합에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 (정 의장과) 만날 수 있지만 현재는 예정이 없다. 당내 중추위에도 우리당과의 당 대 당 협상에는 없고 그 당내 2개 이상 그룹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사실상 당 대 당 추가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전 당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위를 열어 우리당내 중도개혁 그룹, 통합신당, 민생정치모임 등과의 실무협상팀을 결성하고 내달 초 의원 50여명 규모의 중도개혁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의장과 나란히 앉은 장영달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상설기구화 가능성” 孫 “DJ와 밀약설 사실무근”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북핵 6자회담 체제가 해제되지 않고 상설기구로 남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기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독일 외교협회 초청 토론회 연설에서, 6자회담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중국, 미국, 일본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2·13 합의’를 통해 미국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가를 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동의했다고 평가했

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한국·중국·일본·러시아도 이를 지지하는 만큼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김 전 대통령은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를 우려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핵 포기에 대비해 군부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햇볕정책 5~6년 전부터 주장”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밀약설에 대해 “밀약설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저는 김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제가 한나라당에 있고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도 햇볕 정책은 폐기 대상이 아닌 계승 발전 시킬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벌써 5~6년 전부터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범여권이다, 또는 김대중-손학규 밀약이다,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경기지사로서 있을 때도 북한에 대해 베풀자 자원사업을 하면서 북한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해줘서 자립경제 쪽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남북협력 시범운영행사의 참가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겠지요”라면서 “그런 데 전 통일부장관께서 동승을 원하시면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통합할 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반세기만의 남북 열차티켓 누가 잡았나

6·15 정상회담 DJ 수행원 3명 포함

반세기만에 휴전선을 넘어 운행하는 남북 열차의 티켓을 잡은 행운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14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결과, 우리 측 탑승인원은 경의선과 동해선에 100명씩 모두 200명이다. 반면 북측은 50명씩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통일부는 나름대로 엄격한 인선 기준을 적용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계 있는 통일외교통상위, 건설교통위, 국방위, 평화통일특위,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 참석시키고 시험운영의 의미를 고려해 2000년 정상회담 수행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각계 각층 인사를 망라했다는 것.



동해선 시험운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금강산 청년역 인근에서 북한 아이들이 잡초 제거 등 철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은 타고 정동영은 못타고

경의선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김영룡 국방부 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서훈 국정원 3차장, 조종표 외교부 차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이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윤병세 통일안보정책수석, 윤승용 홍보수석,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나란히 경의선에 탄다.

동해선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연상 통일부 차관, 정진호 법무부 차관 등이 고위급 관료로 꼽힌다.

연예인 고은아씨... 군인사도 탑승

주목할 만한 점은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군사보장 조치를 받아낸 우리측 대표단의 정성호(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에 탑승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장, 백낙청 6·15공동위 상임대표, 송기인 과거사정리위원장, 한

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도 눈에 띈다.

이번에 우선선정 대상이 됐던 6·15수행원 출신으로는 임동원·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고은 시인 등 3명만 티켓을 받았다. 하지만 참석을 희망했던 정동영 전 통일 장관은 도중에 명단에서 빠졌다.

노사모 전 회장 명계남씨도 함류

정계에서는 통일통위 김원웅 위원장과 국방위 김성곤 위원장, 평화통일특위 배기선 위원장, 통일통위 간사인 진영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건교위의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과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한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0순위’로 꼽히면서 이재정 장관이 직접 ‘초대’했지만 독일 방문 일정 때문에 탑승이 무산됐고 최경환 비서관만 탑승한다.

경제인으로는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과 개성공단 개발체인 한국토지공사사의 김재현 사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이철 철도공사 사장, 김기문 로안소 사장 등이, 연예인으로는 통일부 홍보에 참여했던 고은아와 노사모 회장을 지낸 명계남씨가 행운을 잡았다. /연합뉴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열차 단계 추진”

이재정 통일 “北 철도 개보수·대륙철도 연결 검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열차 시험운행이 끝나면 당면 수요와 현실 여건에 따라 부분적, 단계적 개통과 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우선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오는 17일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과 관련, “시험운영 뒤 남북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철도 개통과 함께 정기운행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물류를 지원하

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열차를 제공하며 금강산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일 등이 현재의 열차 수요라고 생각한 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험운영 이후 열차를 개성공단 물자 수송 및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통근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통근 및 개성관광 관광객 운송 → 서울~평양 등 남북 간 정기열차 운행 순으로 3단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열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으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일이 반으로 이반 운영은 천리길을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결된 남북철도는 최대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 영청난 시장인 중국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연합뉴스

새로운 다이어트 컨설턴트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www.jir.wo.to

전립선염·조루증·방광염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리산한약방 T.(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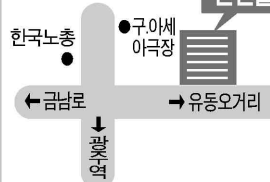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유등로터리 8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5층 중 2,3,4,5층 임대 완료)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위치도



■임대기는 상담후 결정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